

黑鷗 韓世光의 시 연구

김권동*

|| 차례 ||

1. 머리말
2. 방랑을 통한 낭만의 꿈
3. 시적 성찰이 승화된 사색의 형식
4. 맺음말

【국문초록】

지난 2009년 흑구 한세광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흑구문학상’이 제정된 일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의 시나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그의 문학선집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본고에서는 한흑구의 시를 통해 그의 문학적 자취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흑구 시의 특성은 방랑을 통한 낭만의 꿈과 그 인생철학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1930년 6월에 『우리키』에 발표된 「그리한봄은또왔는가」라는 작품을 그의 최초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1940년 6월에 『시건설』에 발표된 「冬眠」이라는 작품이 그의 시로서는 마지막 작품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서 그가 더 이상 시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논의한다.

한흑구는 “시는 문학의 모체”라고 밝히고 아울러 “수필은 시의 정신으로 창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의 문학 속에 시 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필을 통해 그의 시 정신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산문의 시대에 수필과 시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 흑구 한세광, 우리키, 낭만, 성찰, 문학사, 시, 수필

* 대구대학교 강사.

1. 머리말

동해에 숨어 산 검은 갈매기¹⁾ 한세광(韓世光)은 수필을 쓴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수필은 시와 같은 미문으로 씌어졌기에, ‘수필로 쓴 시’ 또는 ‘시적 수필’이라고 하기도 한다.²⁾ 그런데 그는 수필을 쓰기 전에 이미 시를 쓴 시인이자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그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흑구문학상’이 제정되어 그 수상자를 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의 시를 비롯한 소설이나 평론 등 여타의 작품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그의 작품 선집이 나와서 그의 문학적 성과를 어느 정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 선집의 엮은이도 밝히듯이 “시와 소설은 현재까지 파악한 전 작품을 수록했고, 평론과 수필은 두 권의 수필집을 포함하여 그의 작품 중에서 엮은이가 임의로 가려 뽑았다”³⁾라고 언급함으로써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작품이 상당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평양출신인 흑구 한세광은 1929년 시카고 노스 파크대학(North park College)에 입학하여 1933년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Temple University) 신문학과로 전학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그는 “수필 『젊은 시절』, 시 『북미대륙방랑시편』을 『동광』에 발표하는 한편, 홍콩에서 발간되던 『대한민보』에 시와 평론을 발표”⁴⁾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1930년 6월 발행된 『우라키』(제4호)에서 ‘쉬카고 한세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봄은 또왔는가』라는 시를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1) 손춘익, 『동해에 숨어 산 검은 갈매기 - 뒷골목 선술집의 주선(酒仙), 한흑구 선생』, 『손춘익 문학기행 - 깊은 밤 램프에 불을 켜고』, 책만드는집, 1996, 78-89면 참조.
 - 2) 황송문, 『한흑구의 수필세계』, 『수필공원』제4호, 수필공원사, 1983, 302-308면 참조.
 - 3) 민충환 엮음, 『한흑구 문학선집』, 아시아, 2009, 17면.
 -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318면.

한세광이 그의 본명이고 『우라키』는 1925년 9월 26일자로 창간된 ‘북미유학생총회’의 기관지이기에, 이 작품은 흑구 한세광의 작품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그의 등단은 기존의 백과사전의 기록보다 더 앞당겨지는 것이고, 그는 시를 통해 먼저 문단에 나온 것이 된다.⁵⁾

한흑구는 1934년에는 평양 시민의 종합지 『대평양』과 1937년 문예지 『백광』을 창간 주재한 것으로 전하고, 1939년 홍사단사건에 연루되어 피검된 일을 계기로 글을 발표하지 않았다⁶⁾고 한다. 해방 후 1945년 월남하여 수필 창작에 주력하면서 1948년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주하여, 1958년부터 1974년까지 포항수산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미지스트의 시운동』를 비롯한 미국문학 및 작가론에 대한 다수의 평론을 발표하였고 흑구의 시를 번역, 소개한 공적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그의 이력을 대강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문학에서 그가 남긴 자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5) 『국어국문학자료사전』에도 한흑구는 “『동광』에 수필 『젊은 시절』과 시 『북미방랑시편』을 발표하는 한편, 시와 홍공에서 발간되던 『대한민보』에 시와 평론을 발표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젊은 시절』이 『동광』 제27호(1931.11.)에 그리고 『북미대륙방랑시편』이 『동광』 제38호(1932.10.)에 실린 것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작품 이외에도 『한흑구 문학선집』에서 누락된 작품으로는 1933년 3월에 발행한 『우라키』(제6호)에는 『쉬카고』와 『목마른물업』이 있지만 『쉬카고』는 『조선문단』에 다시 재수록된다. 한국국문학편찬위원회 편,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 한국사전연구사, 1995, 3203면 참조.

6)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두 사건의 공통된 특징이지만 그의 연보와 관련하여 확인해보면, 1942년 4월에 『조광』지에 발표한 『농촌춘상』에서 1947년 11월 『백민』지에 발표한 『미국문학의 진수』가 발표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한흑구 문학선집』에 나오는 연보는 1946년에 『예술조선』에 수필 『닭 울음』이 발표된 것으로 신고 있는데, 『동아일보』 1947년 11월 9일자에 『예술조선』 창간호에 대해 신간소개를 하고 있다. 아마도 위연이는 『동해산문』에 실린 년도를 기준으로 연보를 작성했을 성 싶다. 또한 김용성이 작성한 연보와 이강언·조두섭의 『대구·경북 근대문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있다. 김용성, 『한흑구』, 『한국현대문학사탐방』, 현암사, 1991, 288면 및 이강언·조두섭, 『자연의 진실을 찬미한 문인 - 한흑구』, 『대구·경북 근대문인 연구』, 태학사, 1999, 304면 참조.

문학이 수필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것이다.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훤구의 시를 발굴함으로써 그의 시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시는 문학의 최초요, 시는 문학의 모체이다.”⁸⁾라고 밝히고, “먼저 수필은 시의 정신으로써 창작되어야 할 것”⁹⁾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수필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그의 문학 속에 이미 시 정신이 깃들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문학의 갈래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시와 산문의 구분 자체의 문제제기가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산문의 구분은 전통적으로 운문과 산문의 구분에 의존한 것으로, 운문과 산문의 대조적인 검토가 어려운 우리 문학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말의 운율적 구조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은 시와 산문의 경계가 모호하여 아직 비평적·학문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서정적인 수필을 썼다고 평가받는 훤구 한세광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시와 수필, 나아가서는 그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방랑을 통한 낭만의 꿈

‘훤구(黑鷗)’라는 한세광의 필명은, 그 자신이 “어느 색에도 물들지 않는 굳센 색, 죽어도 나라를 사랑하는 부표(符表)의 색”이라는 생각에서 ‘흑(黑)’을 택하였고 “조국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끝없이 방랑하여야 하는 갈

7) 그의 수필과 관련해서는 박정숙, 『이양하·한훤구 수필 연구 : 노장사상적 측면에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및 이영조, 『한국 현대 수필론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등이 있다.

8) 한훤구, 『문예독어록(其二)』, 『신인문학』, 청조사, 1935.5, 111면.

9) 한훤구, 『수필의 형식과 정신』, 『월간문학』, 월간문학사, 1971.3, 336면.

매기 같은 신세였기” 때문에 ‘구(鷗)’를 택한 것이라 한다.¹⁰⁾ 필명 유래와 관련하여 그는 방랑하는 신세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시인들은 흔히 과거의 행복하던 날을 감상적으로 노래”하는데, “특수한 이 땅위에는 과거를 되풀이하고 비참한 현실을 불평, 저주하는 시인들이 많았다”¹¹⁾라고 지적하는데, 이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적 현실과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생활한 그의 방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은 크게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놀이로 나눌 수 있다.¹²⁾ 그런데 놀이는 그 현장성이 배제될 경우는 등장인물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한정되고 결국 작가로 말미암아 조직된 것이기에, 이야기와 구별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된다. 한훤구의 문학작품에는 놀이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기에 노래와 이야기, 곧 시와 산문으로 나눌 수 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면화시켜 표현한 것이 노래라면, 이야기는 보다 큰 집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집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래에는 환희의 노래도 있지만 시사(詩史)를 살펴보면, 환희의 노래보다도 오히려 한탄이나 비탄의 노래가 더 많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불만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뛰어넘으려고 한다. 한훤구 또한 일제강점기에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뛰어넘으려 한 작가였던 것이다. 그는 시를 쓰게 된 동기를 묻는 「시단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0) 한훤구, 「나의 필명의 유래 - 죽어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강한 색깔」, 『월간문학』, 월간문학사, 1972.6, 284면 참조.

11) 한훤구, 「현대조선시인의 철학적 연구 - 신시단의 단편적 회고(一)」, 『조선중앙일보』, 1934.11.21.

12) 김수업은 우리 민족문학 갈래를 ‘놀이’·‘이야기’·‘노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창현이 제시한 원제시형식의 결론과 유사하다. 김수업, 『배달말꽃』, 지식산업사, 2002 및 김창현, 『한국적 장르론과 장르보편성』, 지식산업사, 2005. 참조

十六歲時 中學時節부터 詩를쓰노라 했지만 그動機란 것은 거이本能的의 것이었습니다. 思索과 꿈(想像)이 많은時節이었습니다. 그後도 나의半生이 거이는 放浪生活로 지났으니까 恒常浪漫의꿈이 詩를쓰게한것입니다.¹³⁾

위의 언급으로 보아 한혹구는 16세 중학시절에서부터 시를 쓴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시기의 작품을 아직 찾지는 못했다. 다만 필자가 확인한 『시건설』 제8집의 『冬眠』¹⁴⁾이 그의 마지막 시 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아마도 그는 16세부터 습작을 하다가 32세까지 시 창작을 하게 된 것이고,¹⁶⁾ 이후는 소설이나 수필, 그리고 번역이나 평론 활동을 주로 한 것이다. 논의를 위해 앞서 언급했던, 필자가 추정하는 한혹구의 등단 시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
대동강 어름이 풀니면
 뱃노래 포구에 어즈럽고
뒷 말을 거라지 께—
 한숨에 저저 사발내하는 내고향
아! 그러한 봄은 또 왔는가—
강물 우에 우숨찌워 또 노래찌워
 청춘의 귀한 생명 불타는 노래여!
릉라도 실버들 땅에서 놓하지고
 반월도 흰 모래우에 조각돌 들어나는

13) 한혹구, 『시단문답』, 『시건설』 제8집, 시건설사, 1940.6, 34면.

14) 한혹구, 위의 책, 11면.

15) 필자가 수집하기로는 이 시기 이후의 시 작품은 1954년 김음호가 편한 『한국애정명시선』에서 한혹구의 『밤·秘密』이 있긴 하지만 선(選)한 작품집이라는 점에서 그 이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 한혹구는 발표지면에 창작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표지의 날짜와 다소나마 차이가 있다.

아! 빗낱은 내 고향!
 그러한 봄은 또왔는가!
 진달내 꽃향내 목란봉 우에 사러 젖스나
 꽃구경군의 발자국 더욱이 어즈러움이여!
 빗낱은 류정아래 늙은이의 담배대 터는소리
 아! 내고향 산천에 내고향 산천에
 그러한 봄은 또 왔는가!

三

봄이야 안왔스라고
 눈살을 집흐리고 이마에 늦언즈라만!
 오가는봄 하나이 언만……
 내고향의 봄 몇인가! 난몰나!
 멀고먼 물뱃기서
 넷 씬을 그림하면 문결쇠 잡으니
 조는 듯 씬인 듯 봄바다 우에
 크고도 적은소래! 굴고도 가는소래!
 아참부터 내 가슴을 울너 주네!
 아참부터 내 가슴을 울너주네!
 봄 바다를 건느는 내고향 소래가……(꽃) —三月一日 아참에—
 쉬카고 한세광의 『그러한봄은또왔는가』 1, 3연¹⁷⁾

이 작품은 멀리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향의 봄 정경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1연에서는 고향의 정경, 즉 대동강 얼음이 풀리면서 들리는 뱃노래나 가난한 사람들이 한숨을 쉬어 빨래하는 소리, 하늘 향해 솟아오른 능라도 실버들이나 모래 위에 조약돌이 드러나는 반월도, 그 강물 위로 청춘의 귀한 생명으로 불타는 웃음과 노랫소리를 담던 곳, 그리고

17) 『우라키』 제4호, 북미유학생총회, 1930.6, 122면.

꽃 구경꾼의 발자국이 부산한 모란봉이나 빛바랜 버드나무 정자 아래서 늙은이의 담뱃대 터는 소리가 들리던 그곳,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시적 자아가 그리워하는 봄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그것은 시적 자아의 그리움 속에는 안타까움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시적 자아는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 환상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창작한 날짜가 3월 1일 아침인 것을 보면, 시인의 비탄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1919년 3월 1일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하지 못한 고국의 현실을 생각하는 시인으로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북미대륙방랑시편』에 실린 여러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故×」, 「낮서른거리」, 「異邦에와서」, 「思鄉」(이상 思鄉篇)과 「현손江畔」, 「甲板우에서」(이상 放浪篇)과 「흙의世界」, 「逐出命命」, 「맘대로!」, 「꽃피는處女」와 같이 10편의 작품은,¹⁸⁾ 방랑생활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故×」라는 작품은,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서 조선을 ‘고국’이라 부르지 못한 데서 비롯된 복자(伏字)로 짐작된다는 선자의 지적은 타당하다.¹⁹⁾ 작품의 제목에서도 짐작하듯이, 멀리 낯선 이국에서 고국이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노래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향은 아늑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그 본원적인 곳. 이를 떼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다.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돌아가고픈 욕구가 있다.²⁰⁾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는 모든 것

18) 『동광』 제38호, 수양동우회, 1932.10, 참조.

19) 민충환 위음, 『한혹구 문학선집』, 아시아, 2009, 35면.

20) 자궁회귀본능은 정신적 퇴행현상의 일종으로서, 성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며 살아갈 때 생존의지의 박약으로 말미암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무의식적

이 저절로 이루어진 가장 편안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가장 편안한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다음의 작품은 이국에서 느끼는 시인의 처지가 잘 나타나 있다.

奴隸에서 解放된 껌등이
 오늘은 다시 돈의 鐵鎖에…….
 러시아서 解放된 파란너자
 오늘은 다시 돈의 束縛에…….
 綠色치마의 愛蘭 색시
 오늘도 그치마 綠色…….

모도다 하품하며
 꼬덕 꼬덕 즐고 앉었네.
 한 두 번 電車가 멎드니
 그들도 모다 나리었네.
 그중에 나혼자 남어
 커옌를 도는 車바퀴 소래를 듣네.

쉴쉴히 房문을 닫고
 도라와 자리에 눕네.

그들이 내눈에 쓰림을 주는데
 내몸은 누가 돌보나!
 ××××× ×××
 무엇 무엇해도……
 그들은 名節이 있고,
 그들은 설곳이 있고…….

충동을 느끼는 잠재심리를 이룸이다. 마광수, 『美意識의 원천으로서의 ‘자궁회귀본능’에 대하여』, 『심리주의 비평의 이해』, 1992, 214~231면 참조.

××× ×××××

나는 송곳하나 꼬즐땅도 —

아! 나는 송곳하나 꼬즐땅도……. (1931.4.3.)

— 「밤電車안에서」 부분²¹⁾

자정이 넘은 전차 안에는 삶에 지친 사람들뿐이다.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이나, 러시아에서 해방된 폴란드 여자, 이들은 제도나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새로운 경제적 식민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녹색치마를 입은 아일랜드 색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모두가 돈의 속박에 묶여있는 이국 노동자들이다. 한결같이 피곤한 모습으로 제각기 쉴 곳을 찾아가는 이국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시적 자아는 쓰리고 아픈 마음 가진다. 이 작품에서도 복자(伏字)가 있어 의미파악이 쉽지는 않으나, 이국 노동자들을 바라보던 눈이 자신으로 향하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 만리타향에서 홀로된 자신의 처지가 “송곳 하나 꽃을 땅도”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다. 이 구절은 『한시외전』이나²²⁾ 추사 김정희의 『백과율사비문』의 한 구절을²³⁾ 떠올릴 수 있는데, 그가 귀국한 이후에 발표한 다음의 작품과 유사하다.

1

맞은편 교자우에 잠든 사람.

빠져질듯 늘어진 고개가 건들…건들……

21) 『동광』 제28호, 수양동우회, 1931.12, 98-99면.

22) 『韓詩外傳』, “雖隱居窮巷陋室, 無置錐之地, 而王公不能與爭名矣 / 비록 궁항 누실 아래에 살아서 송곳 꽃을 땅이 없더라도 왕공이 그(大儒)와 함께 명성을 다룰 수 없다.”

23) “貧無貞錐 氣壓須彌 事親如事佛 家風最眞實 厥名兮巨璇 不可說轉轉 / 가난은 송곳 꽃을 자리도 없었으나 기개는 수미산을 누를 만 하도다. 아버이 섬김을 부처를 섬기듯 하였으니 그 가풍은 가장 진실도 하도다. 그 이름은 금선이라 일렀으니 그 나머지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저절로 벌어진 그의 입……
 입으로부터 흘러나리는 적은시내……
 감초지 못할 人間の 醜한 꼴.
 어쩔수 없는 人生의 疲勞다! 疲勞다.

3

疲勞에서 疲勞로……
 흘러가는 人生의 보따리.
 時間과 空間우에서
 시들어 가는 人生들.
 송바닥만 한 地球덩이.
 넓고, 깊고, 끝없고, 끝없는 人生의 바다.

- 「車內的 風景」 1, 3연²⁴⁾

피로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은 이국에서만 벌어지는 풍경이 아니다. 잠에 겨워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은 도시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 작품과 앞선 「밤전차안에서」를 비교해보면, 진술에서 묘사로, 그리고 보다 추상화된 언어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흑인’이나 ‘폴란드 여자’, ‘아일랜드 색시’가 피로에 지쳐 잠든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명절’이나 ‘설 곳’은 시·공간이라는 관념으로, ‘송곳 하나 꽃을 땅’은 ‘손바닥만한 지구덩이’로 구체적인 표현에서 보다 추상적인 언어로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밤전차안에서」는 제도에서 해방된 흑인과 정치적으로 해방된 여인들이 경제에 새롭게 구속됨을 진술한다. 그리고 「차내의 풍경」에서는 1연과 3연의 마지막 행과 같이, ‘인생은 피로’라거나 ‘인생은 바다’라는 일반적인 주제로 귀결하려 한다. C. 카터 콜웰은 문학이란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하기(tell)보다는 말을 써서 보여주는 것(show)

24) 『동아일보』, 1935. 6. 26.

이라고 언급한다.²⁵⁾ 이것은 곧 작가는 단지 독자에게 인생의 가능태(可能態)로서의 사건을 묘사하거나 보여줄 뿐 그 판단은 온전히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인생의 측면을 보여주고 독자는 그것을 공감하는데,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공감의 영역이 폭넓은 것일수록 훌륭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훤구의 시 작품은 그 언어가 추상화됨으로써 공감의 영역보다는 계몽의 성격이 두드러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써 『차내의 풍경』은 내면의 세계가 더 강화되었다. 대우주에서 보자면 지구는 손바닥 정도에 불과할 것이지만, 내면적으로 바라보자면 인생은 넓고, 깊고, 끝이 없는 바다로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한훤구는 수필 『비가 옵니다』에서 “하나의 찰나에서 무한한 영겁을 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²⁶⁾이라고 했다. 이것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한 구절을 번역한 것으로,²⁷⁾ 평소 그가 좋아했던 시인에게서 받았던 인생철학을 그의 작품 속에 투영하려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인이 좋아하는 단어는 그가 즐겨 쓰는 단어로 관심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훤구는 시단에 들려주고자 하는 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명사를 뽑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도보여행(徒步旅行), 사막(沙漠), 낙태(駱駝), 산호(山湖), 석불(石佛), 머구리, 독사(毒蛇), 황혼(黃昏), 십칠기창부(十七紀娼婦), 사화산(死火山), 깨어진 베투, 한 알의 호박씨²⁸⁾ 등등이다. 도보여행이나 사막, 그리고 ‘낙태’(‘낙타’의 오기로 추정-필자)는 그의 방랑의식 속에서 나온 산물이라면 그 나머지는 자연과 관계된 것이다. 그는 나뭇 캐는 처녀나 마른 푸성귀를 베는 총각이나 모두 “자연과 생

25) C. Carter Colwell, 이재호·이명섭 옮김, 『문학개론』, 을유문화사, 1995, 7면.

26) 『동아일보』, 1956. 5. 30.

27) “한알의 모래 가운데서 / 온 세상을 보고, / 뜰밖에 피인 꽃에서 / 天國을 본다. / 그대의 손바닥 가운데서 / 無限을 쥐이고, / 한 時間동안에 / 永遠을 잡는다.” 한훤구, 『시의 생리론 - 시는 진화한다』, 『시학』 제4집, 시학사, 1939. 10, 9면 참조.

28) 한훤구, 『시단문답』, 『시건설』 제8집, 시건설사, 1940.6, 34면.

의 신비에서 어떤 무형의 충동과 일종의 생의 초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²⁹⁾이라고 언급했는데, 다음 작품은 그가 좋아하는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室內의 冬眠 더구나
 溫突우에 冬眠은 부질 없다.
 나는 아직 毒蛇와 함께
 穴內의 冬眠을 해본일은 없다.

눈을 감지 않은 나의 冬眠은
 天井우에 沙漠을 온겨울 그리여 보았다.
 나는 沙漠을 건너 보든 일은 있었으나
 駿馱를 한 마리도 본 記憶은 없다.

온 겨울 하늘을 내여다 보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 바람소리만은 늘 들었다.
 閒閒히 雨雷소리를 들었으나
 겨울에 龍이 떠오를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봄이 오기를 바라며
 머구리와 같이 冬眠을 계속한다.
 다못 앞洞里的 蓮꽃이 썩지나 않았나
 앞겨울 보금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大寒날에)

- 「冬眠」 전문³⁰⁾

이 작품이 실린 『시건설』은 1936년 11월, 압록강 연안에 있는 국경마을인 중강진에서 나온 시전문지이다. 중강진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국방상 진

29) 한후구, 「봄의 초조」, 『백광』 제4집, 백광사, 1937.4, 10면.

30) 한후구, 『시건설』 제8집, 시건설사, 1940.6, 11면.

영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압록강 중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³¹⁾ 『冬眠』이라는 작품에서 사용된 언어는 그가 시단에 들려주고 싶은 명사와 상당수가 공통된다.

동면(冬眠)은 일부 동물이 겨울 동안의 활동을 중지하고 땅속이나 물속에서 잠을 자듯이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시적 자아는 천정(天井)을 바라보며, 기억 속의 사막을 그리면서 바람소리를 듣는다. 사막을 건넌다는 것은 지극히 외롭고 험난한 일이기에, 살내나 온돌에서의 동면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혈내(穴內)에서 동면하는 독사는 그 스스로가 땅을 팔 수가 없기에, 자연적으로 생긴 틈 속에 여러 마리가 모여서 잠을 잔다. 반면에 머구리(개구리)는 물속이나 땅속에서 동면을 하는데, 그 자신이 땅을 파서 동면을 하는 것이다. 시적 자아는 머구리³²⁾와 같은 동면, 이를테면 스스로가 선택한 동면을 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시적자아는 ‘눈을 감지 않은’ 상태로, 의식이 있고 바람소리도 들을 수 있는 동면을 하고 있다. 틈틈이 우렛소리를 들었지만 현실이 겨울만큼 혹독하다보니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 주역에서는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하여, 물은 습한 데로 흐르고 불은 마른 곳으로 나가고,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호랑이를 따른다”³³⁾고 했다. 이것은 잘 어울리는 제격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바람소리나 우렛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용이 떠오를 일이 없는 것이다. 즉 현실상황이 잘 어울리지 않기에, 시적 자아는 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독사나 머구리는 다 같은 겨울을 지나지만, 그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31) 최덕고 편,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5, 84-86면 참조.

32) 중국에서는 개구리를 지네, 도마뱀, 전갈(또는 거미), 뱀과 함께 오독(五毒)이라고 하여 벽사적 의미가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개구리가 집에 들어오면 복이 들어온다’라는 민간 속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길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33) 『周易』, 『乾卦文言傳』,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자 한다. 일찍이 맹자는 “옛 사람이 뜻을 얻으면 은택이 백성에게 베풀어지고 뜻을 얻지 못하면 몸을 닦아 세상에 드러나니 궁하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영달하면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하라”³⁴⁾라고 하였는데, 한훤구의 일생을 통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즉 시적 자아의 삶의 태도가 은일자로서의 태도를 갖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역사 전기적 비평과 관련하여 이 작품을 살펴본다면, 이 작품이 창작될 즈음에는 ‘수양동우회’에 대한 대검거가 시작되었다. 1937년 그가 미국에 있을 때 홍사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경찰에 끌려가 2개월 가까운 구류를 살았다. 유치장에서 해를 넘기고 나온 그는 평양에서 60여리 떨어진 강서군 성대면 연곡리로 낙향하여 손수 과수원을 일구었고, 1939년 미국에서 귀국한 부친 한승곤이 1년간 옥고를 치르고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광복을 맞이하는 날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1945년 9월 1일에 38선을 넘었다고 한다.³⁵⁾ 평소 생활이 “없는 듯한데서 무한히 많은 것, 무한히 높은 것 무한히 깊고 넓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³⁶⁾ 고독을 좋아하던 그의 삶의 태도를 잘 반영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훤구 시 작품의 근원은 방랑을 통한 낭만의 꿈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낯선 이방인이 되어 타국을 방랑하면서도 잃지 않았던 사색과 꿈이 실향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찾게 된 고국에서도 여전히 그는 방랑의식을 가지고 있었다.³⁷⁾

34) 『孟子』, 『盡心句章上』, “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35) 김용성, 앞의 책, 285면 참조.

36) 한훤구, 『문예독어록(其一)』, 『신인문학』, 청조사, 1935.4, 73면.

37) 『한훤구 문학선집』에 나오는 연보로는 1934년에 모친이 별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1936년에 발표한 「가신어머님」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친은 1935년 12월 12일에 별세하신 것이다. 한훤구, 「가신어머님」, 『신인문학』, 청조사, 1936.3,

그래서 다시 도미하려했지만 실패하고, 월남해서는 포항 바닷가에 정착하면서 시 창작은 그만두고 수필이나 소설, 번역이나 평론생활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고목은 불을 때기가 좋고, 오래 묵은 술은 마시기에 좋고, 오랜 친구는 믿을 수 있고, 노련한 작가는 읽을 만하다.(Old wood best to burn, old wine to drink, old friends to trust, and old to read)”라는 구절을, “시간의 흐름에서, 오래도록 늙고 낡아진 것을 뜻함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시련과 인고에서 이겨내서 숙달되고, 노련해진다”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이 같은 구절만 보더라도 그의 삶에 대한 자세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3. 시적 성찰이 승화된 사색의 형식

미당 서정주는 한혹구에 대해 “자진 종생의 귀양살이라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이 묘한 은둔의 사색가”³⁸⁾라고 평했는데, 이것은 그의 품모를 대변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다. 한혹구는 “시를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내가 쓰고 싶은 것은 하나”³⁹⁾이고, 아울러 “인간이기 때문에, 초인간에게 향하여 반항도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저주”⁴⁰⁾하기도 한다고 했다. 지상의 괴로움을 천상에서 구하고 싶은 마음이 ‘그리움’의 정서로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상황인식은 ‘외로움’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혹구가 어떤 갈래에도 구애받지 않고 쓰고자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독창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문예사상의 조류에

161-163면.

38) 서정주, 『跋』, 『동해산문』, 일지사, 1978, 205-206면.

39) 한혹구, 위의 책, 74면.

40) 한혹구, 『시의 생리론 - 시는 진화한다』, 『시학』, 1939.10, 6면.

대해서 한훤구는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고전예술을 파괴한 십팔세기의 자연과학적 인생관은 십구세기에와서 루소 등의 로만티시즘의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자연과 인간본성의 추구는 곧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추구할 대로 추구하고 동경할 대로 동경했다. 그러나 이 감정적 인생관은 환멸과 비애를 느끼게 할 뿐이었다.

여기서 이상주의가 절규된다. 인도주의가 제창된다.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에게 허위의 제도를 높이게 하였다. 여기서 자연주의가 나왔다. 현실주의가 나왔다. 인간의 본능과 참된 생활을 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구 위에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기계가 더 많아지고 理智가 더 많아졌다. 온갖 생물의 존재 경쟁은 진선미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지주의문학이 나온다. 허위의 세상을 욕하고 풍자한다. 세상은 이것이다하고 빨딱하게 벗겨놓는다. 사람도 새빨강게 꺾대기를 벗겨 놓는다.⁴¹⁾

중세 서구의 세계관은 신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신에 귀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근대에 이르러서는 신을 추방하기 시작한다. 특히 현대 문명사를 만든 19세기의 대표적인 학자인 찰스 다윈이나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은 신을 부정하고 이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신이 구현하던 것을 과학이 대신해서 인간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그리고는 이성에 의해 산출된 지식은 세계에 대한 완전하고 확정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 또다시 반성한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에서는 숫자놀음이나 도구성, 물질숭배를 가져오는 이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성만이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음을 회의하고 있다. 원인을 파악하면 세계 전체를 설명할

41) 한훤구, 「문예독어록(其一)」, 『신인문학』, 청조사, 1935.4, 71면.

수 있던 결정론적 인과율이, 관찰행위나 주관적·사회적 행위에 의해 불명확하게 드러나는 확률적 인과율로 바뀌는 것이다.

온갖 생물의 존재 경쟁은 진선미를 부정하고 이지(理智)로서 온통 파헤쳐 놓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나누고 쪼개고 분석하는 데에는 힘을 기울이는데, 여기에는 산문이 유용하다. 산문은 곧 근대 시민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정신의 반영이다. 시가 표현을 중시하는 문학이라면 산문은 의미를 중시하는 문학이다. 이와 관련하여 허버트 리드는 시와 산문을 응축과 분산활동으로 구분한다. 즉 시는 응축의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창조적 표현의 산물이라면, 산문은 분산의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구성적 표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⁴²⁾ 여기서 '구성적'이란 기성의 소재를 뜻하는데, 소재의 재구성에 따른 기성의 언어에 의한 건축물이라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수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생생하게 표현을 그 특성을 들 수 있다. 수필은 자이나 사물에 대한 관조를 중심으로, 적절한 감흥이 인간의 진실성 위에 가미되는 문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필은 시적인 문장이 용납되고, 인생체험을 통한 삶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는 구성적 표현도 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한혹구가 그의 수필 정신을 피력한 글이다.

(가)

중고시대로부터 物語를 시로써 표현하다가 산문이 생겼기에, 산문은 즉 시의 産兒이다. 산문이 성숙하여 시와 분립한 현대에 있어서도 산문은 시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생명을 삼는다. (...중략...) 어떠한 건물이든 지 비실용적인 선과 조각의 모형을 표현하지 않는 건물이 없다. 이 비실용적인 듯한 선과 조각은 곧 미의 표현이며 건물이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이다. 소설에 있어 시적 문구가 인용되는 것은 건축에 있어 선과 조각이 인용되는

42) Hrbert. E. Read, *English Prose Style*, Boston Press, 1957, pp.V-VI.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⁴³⁾

(나)

1. 먼저 수필의 정신은 시의 정신으로서 창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시는 작자의 주관적인 직관력과 사색적인 인생철학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수필도 작자의 주관적인 인생철학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산문적인 작품인 것이다.
3. 수필은 하나의 산문시적인 정신으로써 창작되어야 할 것이며, 줄이면 한편의 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에 있어서 철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수필에 있어서도 철학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철학적인 idea가 없는 작품은 문학도, 음악도, 회화도 될 수 없을 것이고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⁴⁴⁾

(가)와 관련하여 (나)을 살펴볼 때, 한혹구의 산문은 “작자의 주관적인 직관력과 사색적인 인생철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의 시 정신을 기 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문은 시의 산아(産兒)이기 때문에, 수필은 “산문시적인 정신으로써 창작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줄이면 한편의 시가 되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곧 시와 수필이 그 형식에서는 다르지만 결국은 그 정신에서는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내용이 없어도 형식만은 존재할 수 있으나, 형식이 없는 내용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없으니만큼” “작가 개인의 성격과 노력에서 창작되어야 할 것”⁴⁵⁾임을 논의한다.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그 언어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형식이 정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형식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없다는 무형식과는 구별

43) 한혹구, 『문예독어록(其二)』, 『신인문학』, 청조사, 1935.5, 111면.

44) 한혹구, 『수필의 형식과 정신』, 『월간문학』, 월간문학사, 1971.3, 336면.

45) 한혹구, 위의 책, 335면.

된다. 이것은 오랫동안 수필론에서 언급해왔던 ‘무형식의 문학’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수필의 형식은 작품마다 그에 적합한 개성적인 새로운 형식이 얼마든지 창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⁴⁶⁾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형식과 내용의 새로움은 문학에서 얼마든지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 작품은 한훤구의 시가 수필과 어떤 친연성이 있는지를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

판테여!

그대는 ‘영원한 삶’을 노래하였고

피테여!

그대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였다.

2

섹스피어여!

世上의 빈 그림자를

비웃음의 그늘과 눈물의 뜨거움으로써

기슴 기피 기피 그대는 노래하였다.

3

밀톤의 노래는

‘일허버린樂園’이었고

무어여! 그대의 노래는

‘虛空우에 꿈꾼樂園’이었다.

(… 중략 …)

8

타고어여! 그대는

46) 이영조, 『한국 현대 수필론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7면.

거저 잘아나는 印度의 숲을 노래했고
 샌뵈이여! 그대는
 機械와 煙氣이 都市를 咀呪하였다.

9

啄木은 故郷에서 쫓겨나서도
 ‘人生의情熱’을 노래하려 하였고
 金笏은 뜨거운 얼굴을삿갓으로 가리우고
 돌가튼 세상을 찬웃음으로 비웃었다.

○

오- 그러고도-
 詩人은 하늘우에 별가티만었고,
 그들의 수업시 노래는……
 기쁘고, 슬프고, 뜨겁고, 찬것들이었다!
 -『二, 三, 人生編』에서

-『詩人頌』 전문⁴⁷⁾

이상에서와 같이 한훤구는 단테를 비롯한 괴테, 셰익스피어, 밀턴, 무어 등등의 세계의 이름난 시인에서부터 우리나라 김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노래한 인생철학을 기리고 있다. 문학의 기본적인 목적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면, 한훤구는 이 작품에서 와같이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인생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가르치려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시인은, 기쁘고, 슬프고, 뜨겁고, 찬 것에 대해 노래했고, 그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이처럼 형이상학적으로만 머문다면, 현실을 직시하려는 의식은 그만큼 결여될 수밖에 없다.

위 작품은 비록 행과 연을 구분하고는 있지만, 이지적(理智的)인 언어로 한 시인의 공적을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산문정신이 돋

47) 『조선중앙일보』, 1935.10.11.

보인다. 그것은 이 작품이 정서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의미전달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서 김억은 그의 언어 사용과 관련한 시평에서 한혹구의 『自然의 노래』를 예로 들어,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 같은 것을 산문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시에서 구할 것이 무엇이나”라고 언급한다.⁴⁸⁾ 이것은 시가 산만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처럼 한혹구는 1~〇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유사한 형식을 지향하려고 했다. 그것은 현대 시인이 시의 운율보다 ‘음향’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대시에서 운율은 완전히 망각되었고 금일의 문학은 음악적으로부터 회화적, 조각적 경향으로 달음질치고 있다는 그의 지적⁴⁹⁾과도 관련된다. 음악성을 중시하던 시에서 회화성이 강조된 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는 오늘날 현대인의 귀가 너무 예민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리를 질러서 둔한 사람을 깨우던 것이 지금은 낮은 버스 음을 사용하고 있다⁵⁰⁾고 하는데, 이것은 그의 성찰을 기반으로 한 생활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허구적인 요소까지 포함하여 재창조한 것이다. 이에 반해 수필에서 표현된 ‘나’는 어디까지나 작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실제 모습의 작가 자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오영은 “수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를 쓸 수는 있어도, 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필을 쓸 수는 없다”⁵¹⁾라고 했는데, 한혹구 문학의 궤적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고독할 때나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 한계 상황을 인식하게 된다. 한혹구는 스스로가 밝히듯이 ‘고독’과 ‘고독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좋아했다. 이를테면 하나의 태양 별빛, 한 개의 전신주,

48) 김안서, 『用語는 枝葉이 아니다 - 한혹구씨등의 언어』, 『매일신보』, 1935.4.12. 참조.

49) 한혹구, 『문장』, 문장사, 1939.7, 181-182면.

50) 한혹구, 『문예독어록(其一)』, 『신인문학』, 청조사, 1935.4, 73면.

51) 윤오영, 『수필문학입문』, 관동출판사, 1977, 191-192면.

한 포기의 뜰꽃, 혼자 누운 외무덤 등인데, 없는 듯한 데서 무한히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없는 듯한 데서 무한히 아름다운 것을 느낀다는 것은 환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환상은 시적 성찰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한혹구는 사색을 통해 그의 시적 성찰을 드러낼 자유로운 형식으로 수필은 발견하는 것이다. 불문의 'essai', 영문의 'essay'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 또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그 어원을 찾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으려는 자유로운 형식을 찾는다. 그러면서 철학이나 문예비평이 속한 경문학(硬文學)과 시나 소설 등의 연문학(軟文學)을 아우를 수 있는, 즉 학문과 예술을 함께하는 형식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 속에서 인생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찾으려했고,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수필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물이 많은데, 「나무」를 비롯한 「보리」, 「석류」, 「감」, 「진달래」, 「흙」, 「산」, 「새」, 「길」 등등의 작품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자연물에 그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무를 사랑한다. 뜰 앞에 서 있는 나무,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 우물 독에 그림자를 드리운 나무, 길가에 서 있어 길가는 사람들의 쉼터를 주는 나무, 산꼭대기 위에 서 있는 나무.

(... 중략...)

나는 나무를 사랑한다. 성자(聖者)와 같은 나무. 아름다운 여인과 같은 나무. 끝없는 사랑을 지닌 어머니의 품과 같은 나무. 목상하는 시인(詩人)과 같은 나무. 나는 나무를 사랑한다.⁵²⁾

작가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에 대해 인간이나 사회의 어떤

52) 한혹구, 「나무」, 『동해산문』, 일지사, 1978, 9면.

현상과 연결시켜서 바라보고,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해석하려고 한다. 즉 세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거나 자아 속에서 세계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동화(assimilation)가 세계(대상)를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여 동일화시키는 것이라면, 투사(projection)는 자아의 감정을 세계(대상)에 이입시켜서 자아를 세계와 동일화시키려는 것이다.⁵³⁾ 동화는 세계를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아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투사는 자아를 세계에 상상적으로 감정이입 시켜서 자아와 세계가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세계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훤구는 나무에, ‘성자’나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어머니의 품’이나 ‘묵상하는 시인’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곧 자연 속에 자신을 상상적으로 투여하는 낭만적 자연관과 관련한다.

慾望이 없었다면 나는 무엇하려고 세상에 태어났을 것인가? 그러나慾望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었나?

아름다운 나의慾望은 검은悲哀만을 가져온다. 검은悲哀는 오히려 나에게 있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항상失望하는 나의 마음 속을 채워 줄 수 있는 親한 友情일 때도 많다.

“人生은 貧困과 倦怠와 싸우는 것이다.”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말이다.

나는 貧困과는 싸웠으나, 倦怠와 싸워 본 적이 없다. 나는 결코 삶의 倦怠를 느껴 보지는 않았고, 오히려 焦燥에서 살았을 뿐이다.

나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 기막히게 많다. 祖上들이 하다가 남긴 일. 그것보다도 나 自身の 일을 찾아야 하겠다.

그러나, 혼자서는 하나도 이루지 못할慾望이다. 그러나, 나는 落望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焦燥하지도 않으련다. 거리 위로 闊步하는 나의 젊은 同生

53) 김준오, 『(제3판)시론』, 삼지원, 1999, 32-33면.

들을 보라.

“Plain living, high thinking.”(平凡한 生活, 高尚한 眞理.)

차알스 램(Chals Lamb)의 이 名句는 나의 壁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붙어 있는 글이다. 나의 同生들에게도 이 壁書를 써 주고 싶다.⁵⁴⁾

낭만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단순한 삶을 흥미롭게 하고자하는 욕망으로 체험된다. 그리고 그 욕망은 대상이 끊임없이 달아나기 때문에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한훤구는 아름다운 자신의 욕망이 검은 비애를 가져오고, 오히려 그 검은 비애가 있어 아름답다고 진술한다. 여기서 ‘검은 비애’는 욕망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물인데, 그것조차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실한 삶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인생은 빈곤과 권태와 싸우는 것”이라는 사무엘 존슨의 말과 관련하여, 그 자신은 “빈곤과는 싸웠으나 권태와는 싸워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초조에서 살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에서는 ‘권태’를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하고자하는 많은 일들 속에는 기대감으로 가득차면서도 애가 타는 초조함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조함조차 지우고자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로부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알고 자기의 직업을 즐길 줄 아는 사람”⁵⁵⁾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게 된 것이다.

4. 맺음말

새로운 작품을 실증적으로 찾아내고 정리하면서 당대 작품의 성격이나

54) 한훤구, 『나의 벽서』, 『동해산문』, 일지사, 1978, 94-95면.

55) 한훤구, 『四海公論』, 1936.6.

개별 작가 의식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면, 문학사는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고 또 쓰여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수필가로 알려진 흑구 한세광은 ‘시는 문학의 모체’라는 인식하에 시를 먼저 쓴 시인이다. 본고에서는 1930년 6월에 발간한 『우라키』(제4호)에서 발표한 「그리한봄은 또왔는가」라는 시작품이 흑구 한세광의 첫 작품으로, 그리고 1940년 6월의 『시건설』에 발표한 「冬眠」이 그의 마지막 시 작품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그 근거를 밝혔다.

흑구 한세광의 시의 특성은 방랑을 통한 낭만의 꿈이 인생철학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양 출신인 그가 도미하여 시카고 등지를 전전하다가 포항으로 정착하기까지, 그는 평양을 비롯한 시카고나 서울 등지를 방랑한 작가이다.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었던 그의 이국생활은, 낯선 이국땅의 풍경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이 주조를 이룬다. 귀국 후 그 언어적 특성은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언어 사용보다는 추상적인 언어로 진술하려는 경향이 많아진다. 그러다가 1940년대 혹독한 현실에서 그는 더 이상 시 작품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한흑구는 절필하였다가 산문을 쓰게 되는데, 수필은 그가 즐겨 쓰던 형식이다. 수필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물에 대한 관조를 중심으로 자신의 주관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자유롭고 독창성이 강조된 형식이 수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에서는 그 주관성이, 학문에서는 그 객관성이 요구되는데, 수필은 이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형식인 것이다. 물론 그의 수필은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것이다. 그는 미적 체험을 철학화하려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러한 형식으로 수필을 택했던 것이다.

한흑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빈곤과 싸우고 초조에서 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를 통해 그의 성실한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의 수필 작품은 주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즉 그는 자연물로부터 소재를 가져와서 생명의 존엄성을 노래하고 다른 생명체와 동등한 존재로서 인간을 노래한다. 이곳저곳 떠다니면서 백년도 살기 힘든 사람에 비해, 한곳에 가만히 서서 오랜 세월을 사는 나무에 대한 그의 깨달음은, 그의 체험적 삶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周易』, 『孟子』, 『韓詩外傳』

『동광』 제28호, 수양동우회, 1931.12, 98-99면.

『동아일보』, 1935. 6. 26.

『우라키』 제4호, 북미유학생총회, 1930.6, 122면.

민충환 엮음, 『한혹구 문학선집』, 아시아, 2009.

한국국문학편찬위원회 편, 『국어국문학자료사전(하)』, 한국사전연구사, 1995, 3203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318면.

한혹구, 『현대조선시인의 철학적 연구 - 신시단의 단편적 회고(一)』, 『조선중앙일보』, 1934.11.21.

한혹구, 『四海公論』, 1936.6.

한혹구, 『가신어머님』, 『신인문학』, 청조사, 1936.3, 161-163면.

한혹구, 『봄의 초조』, 『백광』 제4집, 백광사, 1937.4, 10면.

한혹구, 『문장』, 문장사, 1939.7, 181-182면.

한혹구, 『시의 생리론 - 시는 진화한다』, 『시학』 제4집, 시학사, 1939. 10, 9면.

한혹구, 『시단문답』, 『시건설』 제8집, 시건설사, 1940.6, 34면.

한혹구, 『수필의 형식과 정신』, 『월간문학』, 월간문학사, 1971.3, 336면.

한혹구, 『나의 필명의 유래 - 죽어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강한 색깔』, 『월간문학』, 월간문학사, 1972.6, 284면.

한혹구, 『현대미국시선』, 선문사, 1949.

한혹구, 『인생산문』, 일지사, 1974.

한혹구, 『보리』, 범우사, 1975.

한혹구, 『동해산문 : 한혹구수필집』, 일지사, 1978, 205-206면.

2. 논문자료

김안서, 『用語는 枝葉이 아니다 - 한혹구씨등의 언어』, 『매일신보』, 1935.4.12.

박정숙, 『이양하·한혹구 수필 연구 : 노장사상적 측면에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영조, 『한국 현대 수필론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27면.
 한혹구, 『문예독어록(其二)』, 『신인문학』, 청조사, 1935.5, 111면.
 황송문, 『한혹구의 수필세계』, 『수필공원』 제4호, 수필공원사, 1983, 302-308면.

3. 단행본

- 김용성, 『한혹구』, 『한국현대문학사탐방』, 현암사, 1991, 288면.
 김용호 편, 『한국애정명시선』, 문성당, 1954.
 김용호 편, 『낙엽은 눈에 쌓이고』, 대문사, 1960.
 김준오, 『(제3판)시론』, 삼지원, 1991, 32-33면.
 마광수 편저, 『심리주의 비평의 이해』, 1992, 214~231면.
 손춘익, 『손춘익 문학기행 - 깊은 밤 램프에 불을 켜고』, 책만드는집, 1996, 78-89면.
 윤오영, 『수필문학입문』, 관동출판사, 1977, 191-192면.
 이강연·조두섭, 『자연의 진실을 찬미한 문인 - 한혹구』, 『대구·경북 근대문인 연구』, 태학사, 1999, 304면.
 장백일, 『현대수필문학론』, 집문당, 1994.
 채종한, 『문인열전 : 혹구 한세광 편 - 포항문화에 뿌리를 내려놓고』, 『계림을 밝히는 별들-생애와 문학』, 도서출판 뿌리, 1995.
 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1·2·3』, 현암사, 2005, 84-86면.
 C. Carter Colwell, 이재호·이명섭 옮김, 『문학개론』, 을유문화사, 1995, 7면.
 Hrbert. E. Read, *English Prose Style*, Boston Press, 1957.

Abstract

A Study on Hukoo(흑구黑鷗), Han SeKwang(한세광韓世光)'s Poetry

Kim, Kwon-Dong

It is of significance that the first Hukgu Literature Prize has been presented to celebrate a centennial anniversary of Hukoo(흑구黑鷗), Han SeKwang(한세광韓世光)'s birth. However, it is a pity that any earnest studies on his novels or poems have never been made. For instance, although his literary miscellany has been recently published, it still need supplementing in many parts of its. Therefore, this study on Han Hukoo's poetry is to search his literary traces left through his poems.

Romantic dreams were sung in his poems through his vagabond life. On my presumption, the poem like "Has such spring came again?" published on Uraki in June, 1930 was his first work and "Hibernation" on The Construction of Poetry (『시건설』) in June, 1940 was the last one he had ever written.

He does not only say definitely "poetry as the parent of literature," but he also emphasizes that "essays should be written in the spirit of poetry." This means that the poetical spirit is implicated in his literature. Therefore, by looking into his spirit of poetry left through his essays we are able to indicate an important foundation, under which the relation between poetry and essays can be explained in the era when prose prevails like today.

In addition, when a completed edition of Han Hukoo's works is prepared on the ground of the published selection of his works, we can expect to form the very basis that his literature can be really discussed on.

key-words : Han Hukoo, poem, essay, romantic dreams,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spirit of poetry

김권동

대구대학교 강사

주소 : (706-1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326-3번지 301호

전화번호 : 016-875-0011

전자우편 : kimsiin@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